

피아노로 오페라로 클래식 음악 쉽고 재밌게~

요즘 지역 문화계 반가운 흐름 중 하나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체계적인 '클래식 공부'에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 강좌에 대한 호응도 높다.

특히 연주자가 직접 강의를 이끌게 되면 즐거움이 또 하나 있다. 현장에서 강의 내용과 연결된 즉석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다.

피아니스트 조현영(36)씨와 소프라노 유형민(40)씨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두 사람은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에서 '피아노'와 '오페라'로 클래식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대를 거쳐 쾰른음대,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박사과정을 마친 조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매월 두번째 주 수요일·무료)를 진행중이다.

매일 한명의 작곡가와 그의 대표 피아노협주곡이 '토크'의 소재가 된다. 작곡가의 생애와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유명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의 연주 실황을 감상하고, 주요 피아노 주제를 직접 연주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클래식을 막연히 듣는 것보다는 길잡이가 있으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진지하시고,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음악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음악을 연주해드릴까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대중적인 것과 학구적인 것들을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조씨는 서울 한국가곡예술클럽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 졸업후 아리조나 대학과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속한 유형민씨는 올해부터 '오페라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다락에서 처음 열리는 오페라 강좌다.

지난 1월 8일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로 시작한 강의는 '오페라 교실'이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거쳐 레온 카발로리의 '팔리 아치'까지 유명 오페라를 만날 수 있다.

오페라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터라 강의 방식 등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 모두 20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오페라 교실은 외국의 유명 오페라 공연 영상을 적극 활용한다. 주요 아리아는 유씨와 초청 인사들이 직접 들려주기도 한다. 특히 오페라 강좌가 자주 열리지 않으니 수강생들의 기대치도 높은 편이다.

피아니스트 조현영·소프라노 유형민씨

감상실 '다락'서 강좌... 길잡이 역할 '특특'

"회원분들 가운데는 '작정하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웃음).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오페라는 종합 장르라 볼거리가 풍성해요. 음악 뿐 아니라 역사, 이야기까지 모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강의 '라 트라비아타' 때 '멘붕'을 경험한 회원들도 있었어요. 저도 실은 오페라를 볼 때마다 어려워요. 일주일만에 한번 더 보고, 한달에 한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해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꼭 DVD가 없더라도 요즘에는 유튜브에 유명 오페라 공연장면들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해도 좋아요."

클래식 강좌는 두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해 해주었다. 조씨는 '피아노 토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자, '행복한 놀이터'라고 말한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왔지만 국내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혼자서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피아노 토크'를 만났기 때문이다. 내 생각을 펼쳐보고 싶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클래식을 알아가려는 이들에게 무언가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 속에만 갖고 있던 내 생각을 펼쳐보자,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생각했고 그게 바로 '피아노'였어요. 이제 토크 콘서트를 찾아와 주는 이들과는 진짜 가족처럼 돼버렸네요. 몸은 힘들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 스스로도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유씨는 "20주 동안 매주 2시간씩 오페라를 공부하러 오신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며 "다들 열심히 배우려하시고, 그 열정과 진지함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못지 않아 제 자신을 다잡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다락'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씨가 매일 한차례(마지막주 화요일) '이종만의 생생 클래식'을 운영중이며 3월7일부터는 바리톤 박병국씨가 2기 오페라 강좌를 이어간다. Cafe.daum.net/darakclassic. 문의 062-226-40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노 토크'와 '오페라 교실'을 진행하는 조현영(사진 왼쪽)씨와 유형민씨.

'꽃들아! 춤을 추어라'

시립미술관 전현숙 초대전, 내달 12일까지 서울 갤러리 GMA

작가의 감정들을 고스란히 작품에 녹여낸 일기장과도 같은 전시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다음달 12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간동 갤러리 GMA에서 전현숙 초대전 '꽃들아! 춤을 추어라'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꽃들아! 춤을 추어라' '이슬을 털다' '그 남자' 등 전세의 최근작 18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그동안 두려움, 설렘, 억압, 자유, 욕망, 행복 등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감정들을 작품에 녹여내 왔다.

"작품들은 대화의 창이자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전시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창작스튜디오와 북경창작센터에서 창작 활동을 해왔으며 7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지난 2008년 신세계미술제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의 중앙 무대 진출을 돕기 위해 갤러리 GMA에서



'꽃들아! 춤을 추어라'

지역 작가들의 초대전을 1년에 2~3차례 연다. 문의 02-725-004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스승 김죽과 선생 맥 잇고파

성심은 가야금독주회, 오늘 빛고을전수관

가야금 연주자 성심은(전남대 예술대 국악과 교수)에게는 두명의 잊지 못할 스승이 있다. 운명적으로 가야금을 시작하게 해주었던 이재숙(서울대 명예교수) 선생과 인간문화재 김죽과 선생이다.

1974년 죽과 선생과 첫만남 후 그녀의 한옥집을 드나들며 가야금을 배웠고,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김죽과류 가야금 산조 이수자로, 죽과·학연구회 회장 등을 맡으며 스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오후 7시 빛고을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성심은 가야금독주회는 김죽과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들을 수 있는 공연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구름(口音)과 산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구름은 악기의 고유한 특성을 임의로 흉내내는 소리를 말한다. 성교수와 함께 공연하는 이는 박죽주·박초월 선생에게 관소리를 사사받은 조순애 명인이다.



조 명인은 죽과의 고수로 활약했던 인간문화재 고(故) 김동준 선생의 부인으로 성교수에게 구름으로 김죽과류 가야금 산조를 전수해주었다. 전석 무료. 문의 062-530-30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진행

매주 토요일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과 예술 체험을 통한 자기설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학교 밖 학교'가 문을 연다.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주센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3월초부터 연말까지 문화기반시설 15곳에서 '2013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한다.

무등현대미술관은 환경수업과 미술수업을 통합한 '에코지움'을 진행하고, 문화행동 SHARP는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직접 축제를 기획한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뮤지컬 창작에 도전해보는 서구 농성 문화의 집 '뽀뽀한 토요일'도 흥미롭다. 문의 062-670-576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오쟁끼 데스까"

추억의 영화 '러브레터' 디지털버전
오늘부터 광주극장서 재개봉

하얀 눈 덮인 산 위에서 애절하게 사랑하는 이의 안부를 묻는 여자의 모습.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러브레터'의 이 장면은 '오쟁끼 데스까(잘 계시나요)'라는 대사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 1999년 개봉된 '러브레터'는 당시 국내 개봉 일분 영화 최초로 140만명의 관객을 동원, 흥행에 성공했다. '하나와 엘리스', '4월 이야기'의 이와이 순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러브레터'가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28일부터 광주극장에서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훗카이도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영상미와 나카야마 미호의 연기, 서정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러브레터'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름이 똑같은 여인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아련한 첫사랑을 추억하는 작품이다.

한편 현재 광주극장에서는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수상작인 '실버라이브 플레이북',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인 '아무르', 홍상수 감독 작품으로 올해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로라이즈 김담' 등이 상영중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허니문 고객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허니문카드 특전

- 객실이용시 4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가족모임(동전치, 교회연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현수막, 케이크 서비스)
-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이용시 4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단 본인2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제과 전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